

광주 서구 '꼼수' 예산편성 논란

선행절차 빠뜨린채 예산편성...1억 들쭉날쭉

"지자체 나쁜 사례 종합판"...의회에 비판도

광주 서구가 3억에 달하는 전시성 행사를 추진하면서 '꼼수'로 예산편성을 해 논란이다. 이에 원칙에 어긋난 추경 예산안을 통과 시키려 한 서구의회가 집행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25일 제 27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찬성 10명, 반대 2명 의견으로 가결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2억8150만원의 예산 중 올해 필요한 추경 예산 4000여만원이 포함됐다.

광주 서구가 준비하는 행사는 1518명의 청소년과 주민이 소고, 소금, 나뭇, 에그셰이커 등을 합주하는 공연으로 약 900여명과 강사료 등으로 2억8150만원이 책정됐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이 행사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이기에 명백한 재정투자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예산이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추경안에 편성되면서 서구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논란에 서구는 임시회 전날인 24일 부랴부랴 서면으로 투자심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을 밀어붙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일부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자 원포인트로 재정투자심사를 열어 회의 직전에 투자심사를 마친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에 절차도 무시하고 3억원 상당의 예산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끼워 맞추기식'으로 회의 직전 꼼수로 위법을 피해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비판에 서구는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했다.

서구 관계자는 "선행절차가 빠

졌다길래 서면으로 심사를 마쳤으므로 위법이 아니다. 예산편성과 투자심사를 병행하는 것은 다반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편성하고도 집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 사업 집행 전인 10월31일에 투자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고 반박했다.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눠 실시하게 돼 있다. 1차 심사는 3월31일, 2차는 6월30일, 3차는 10월31일까지 심사하게 되어 있다. 서구

는 예산 편성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돈만 쓰지 않고 10월31일에 투자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 괜찮다는 입장인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구와 의회가 수역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련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각종 논란 속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서구는 추경안 가결 직후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런 서구의 행정에 타 자치구 관계자는 "나쁜 사례의 종합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예산편성 절차도 어긋났고 논란에 대한 해명도 황

당하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구색 맞추기를 하려고 전날 급히 원포인트 서면심사도 투자심사 완료 아니라 거수기로 심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정투자심사는 예산을 세우기 전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절 한지를 따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했다면 또 다른 사업들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예산을 세워놨으니 투자심사 통과 해야 한다고 강압하거나 의회를 거수기로밖에 안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게 불에 탄 선박 29일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서 전날 폭발 화재가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스틀트 그로이란드' 호가 불에 타 있다.

광주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 27.9명...과학고의 1.75배

전국서 격차 가장 심해...전남은 1.24 배 격차 최소

광주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과학고보다 1.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교육부의 '고등학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25.2명이다.

광주의 경우 이보다 많은 27.9명으로 제주에 이어 일반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두번째로 많았다.

반면 전남의 일반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7명으로 이는 경북과 세종에 이어 세번째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특수목적고인 광주과학고는 15.9명, 전남과학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19.2명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과학고와 비교했을 때 1.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일반고의 학생 수가 과학고보다 1.24배 많은 것으로 확인

되면서 광주와는 반대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격차가 가장 작았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려면,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일반고 환경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반고 강화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제주, 광주, 충북 순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전남, 강원 등의 순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

스크류 걸린 어망 제거하던 40대 잠수사 숨져

항해 중인 선박의 스크류에 걸린 어망을 제거하던 40대 민간잠수사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9분쯤 완도 대두구 남서쪽 3km 해상에서 A호(222톤·승선원 10명)가 군산 어청도로 이동하던 중 스크류에 어망이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했고 승선원 대상 구명조끼 착용지시와 VTS에 통항선박 대상 안전항해 방송 조치를 취했다.

또 어망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잠수사 4명을 섭외해 오전 3시18분경 민간잠수사 B씨(49)가 1차 어망제거 작업을 위해 입수했다.

하지만 B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3시58분쯤 2차 잠수사 C씨(47)가 입수 후 의식을 잃은 B씨를 발견, 연안구조정에 인양했다.

해경은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완도 신전응부두에 입항했고, 오전 4시50분쯤 119에 인계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우리 가족과 같은 분이 사고가 나서 안타깝다"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망경위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례서 밤 따던 70대 여성 벌에 쏘여 숨져

28일 오후 3시15분쯤 구례군 간전면 야산에서 밤을 따다가 벌에 쏘인 70대 여성 A씨(73·여)가 사망했다.

119구급대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밤을 따던 중 사고를 당해 가족을 통해 119에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산물 먹은 관광객 22명 '식중독 의심증세'

경남 거제 한 횡집에서 해산물을 먹은 손님 20여명이 단체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11시41분쯤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한 펜션에서 머물던 A씨(51) 등 15명이 집단으로 복통 및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어 뒤늦게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일행들도 차례로 병원에 옮겨져 총 22명이 치료를 받았다.

서울에서 온 일행은 총 29명으로, 거제를 관광하려고 이 펜션을 찾았다가 이날 오후 6시쯤 인근 횡집에서 해산물을 먹은 뒤 22명이 이같은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4년 추적 사기범·마약밀수범 태국서 검거

경찰이 4년여 추적 끝에 200억원대 사기를 벌인 뒤 태국으로 도피했던 피의자와 마약 밀수입 뒤 도망했던 피의자 등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B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C씨 등 인터넷 적색수배자 3명을 태국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28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해외선물투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금·호주 달러 등 해외선물 투자를 명목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등 80여명에게 200억원 가량을 받아 2016년 태국으로 도피했다.

B씨 역시 피해자 719명에게 62억원 상당을 챙겨 태국으로 도망 후 잠적했다. 그는 자신을 주식투자 애널리스트라고 주장하며 장외주식을 추천해 차액수익을 챙겼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처럼 '장의주식 카페'를 만들어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겼다.

C씨는 태국을 오가면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하다 검거됐으나 범망을 피해 태국으로 도피했다.

임병호 의사수사과장은 "앞으로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